

초중고 교실마다 '콜록콜록' 콧물 '줄줄'

코로나19 방역 완화 기점 학생들 감염병 발생 폭증 2021년 267건 → 2022년 7312건 → 지난해 1만4598건 교육청 "코로나 위기 낮아지며 개인위생 실천 저조"

제주지역 학교에서 인플루엔자, 수두, 수족구병 등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했던 감염병 발생 사례가 2배 이상 급증하며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1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방역 완화를 기점으로 주요 감염병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주요 감염병(코로나19 제외)은 인플루엔자·수두·유행성이하선

염·수족구병 등 4종이며, 호흡기(밀접 접촉)로 주로 전파된다.

최근 3년간 제주 학생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 267건, 2022년 7312건에서 지난해 1만4598건으로 급증했다.

인플루엔자의 경우 2021년 1명에서 2022년 7074명, 지난해 1만3509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두 발생은 2021년 158건, 2022년 71건으로 줄다 지난해 463건으

로 늘었다. 수족구병은 2021년 6건, 2022년 96건, 지난해 426건 등이다. 유행성이하선염은 2021년 42건, 2022년 36건, 지난해 52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주요 감염병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감염병 예방 교육에 대한 실효성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도교육청은 평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출현 이후 개인 위생 수칙이 강조됐지만, 방역 위기단계가 낮아지면서 실천율이 하락하는 추세라고도 설명했다.

학교에서의 개인 위생 교육 경험을 역시 2020년 60%대까지 상승했었지만 2022년부터는 30~40%로 낮

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가정 간 연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제2차(2024~2028년) 제주 학생 감염병 예방 세부대책안을 수립해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토대로 교육기관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며 생활 속 실천 수칙 교육, 예방 접종력 관리, 유행 감시 체계 운영, 방역 물품 비축 등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다혜기자

길 잃은 고사리 채취객 잇따라 구조 지난 주말 구좌읍·안덕면서 60대 여성 등 3명

소방본부 "전문 훈련받은 119구조견 투입해 구조"

119구조견의 활약으로 길 잃은 고사리 채취객이 무사히 구조됐다. 3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2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인근에서 60대 여성 A씨가 고사리를 꺾다 길을 잃었다고 신고했다.

소방본부는 즉시 119구조견 '강호'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고, 현장 투입 30분 만에 A씨를 발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에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인근 숲

에서 고사리를 캐다 길을 잃은 7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강호에 의해 발견됐다. 소방본부는 가시가 많고 숲이 우거진 특성상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곳이 많다고 보고 강호를 투입, 40분 만에 이들을 발견했다.

길을 잃은 고사리채취객 3명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조견 강호는 저면 세퍼드종으로 5살이다. 강호는 119구조견 전문훈련과정 수료했으며 국가공인 복합임무(산악+재난) 1급 자격을 갖고 있다. 지난해 3월 제주도 소방본부에 배치된 후 약 50건의 재난·사고 현장에 출동해 활약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숨이 막힐 듯"... 황사 덮친 제주섬 3월 고트머리인 31일 황사가 제주섬을 덮친 가운데 산록도로에서 바라본 제주시가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실종경보 문자' 발송 2시간 만에...

치매노인 연동서 배회하다 시민 신고로 무사

제주지역에서 실종된 치매 노인이 실종 경보 문자 발송 2시간 만에 가족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지난달 2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6시 35분쯤 "아버지가 실종됐다"는 아들의 신고를 경찰이 접수했다.

실종자는 치매를 앓는 70대 A씨로,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주거지 인근 CCTV를 분석하는 등 주변을 수색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지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A씨 신변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시민의 제보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8시 33분쯤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실종 경보를 본 한 시민으로부터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혼자 배회하는 노인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경찰은 이 제보를 토대로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길거리에서 A씨를 찾아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제보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시민 제보를 받기 위해 실종 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나이와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 발견에 필요한 기타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제도를 지난 2021년 6월 도입했다. 이상민기자

여친 살인미수 40대 구속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4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자택에서 함께 사는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에서 이송된 B씨는 "자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자해 전 망설임 흔적을 일컫는 '주저흔'이 없는데다 등에도 상처가 발견돼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료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은폐한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상민기자

윗세오름에 올라 먹는 컵라면이 꿀맛?

국물 땅에 버리는 탐방객 때문 한라산 청정환경 오염 우려

한라산 등반에 나선 탐방객들이 무분별하게 버린 라면국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돼 대대적인 예방 캠페인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올해 '라면국물 남기지 않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현재 윗세오름에서는 보온병에 담아온 뜨거운 물을 부어 컵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취식을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 탐방객은 먹고 난 후

쓰레기를 되가져가고 있지만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 처리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대피소 등의 음식물처리 통에 버려진 컵라면 국물은 관리소 직원이 직접 가지고 내려가 처리중인데 그 양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컵라면을 취식하는 탐방객들이 늘며 남은 국물을 화장실이나 땅에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운동은 한라산 탐방객들이

라면을 먹은 후 남은 국물로 인한 쓰레기를 줄여 청정 한라산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탐방객들의 쓰레기 처리 의식 전환을 고취하기 위해 탐방로 입구, 대피소 일원에서 라면국물 등을 남기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한라산국립공원은 '라면국물 남기지 않기 운동'을 현수막 및 SNS를 통해 탐방객들에게 알리는 한편 봄철 성수기에는 어깨띠 착용 캠페인을 벌여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도영기자

질병청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제주서 작은빨간집모기 발견

제주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 제주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완도군에서도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되면서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0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 3월 23일에 비해 7일 늦어졌다.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리면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 전파되게 된다.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경련,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고 20~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김재현기자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큼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곳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심한 불안증세·약동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이 심한 경우! ■ 환경·환경증세 심한 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목하고, 이상행동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중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회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문자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졸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외처, 외부증 심함)
※ 애원건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여류(장어, 물고기 종류),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으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수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746-0789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쉬운 높이 조절

쿨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쉽게 높이 조절되는 쿨고리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인파고정판

인파밴드

쿨고리 작업세트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획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다인산업(주)
www.dainfine.com

054-652-3725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